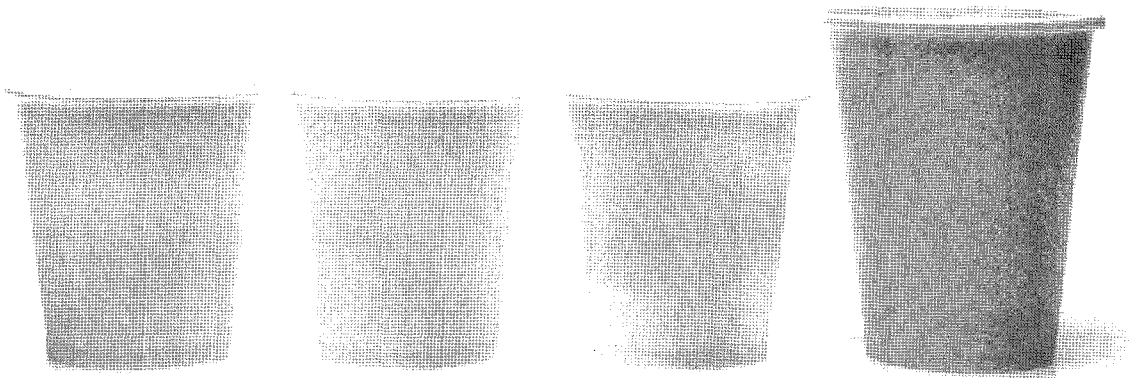


발명 365

종이컵



바쁜 현대생활에서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음료 자판기. 이 자판기 시대가 가능한 것은 종이컵의 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음료 자판기 시대를 꽃피우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

미국 캔자스의 휴그 무어는 1907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한 살위인 형 로렌스 루엘렌은 생수 자동판매기를 발명하여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형의 발명품

에 사용되는 컵은 도자기여서 너무 쉽게 깨지는 단점이 있었다. 형의 고심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휴그 무어는 깨지지 않는 컵을 생각하게 되었다. 깨지지 않는 것은 종이, 종이는 물에 젖으면 찢어진다. 찢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등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던 그는 물에 쉽게 젖지 않는 태블릿 종이를 사용하여 종이컵을 발명하게 된 것이다.